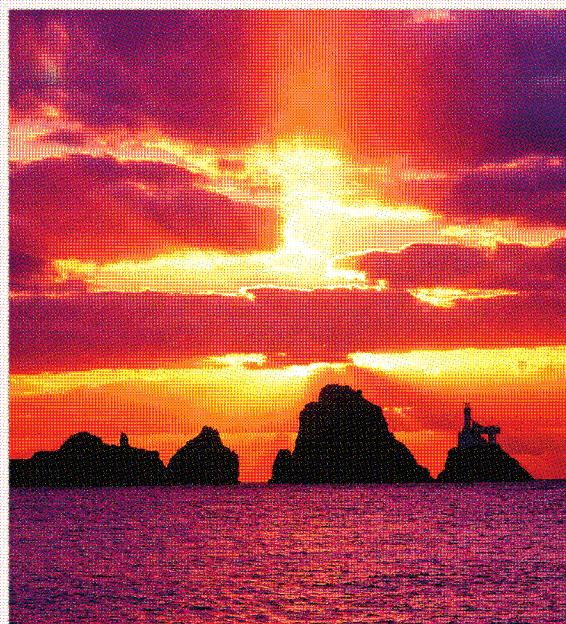


發行人 / 임현택
 編輯人 / 김동진
 發行處 / 釜山中高總同窓會
 부산시 동구 초량동 806 부산고등학교내
 TEL 051-464-3171~2 FAX 464-3868
 홈페이지주소: <http://cheongjo.or.kr>
 E-mail주소: bugodong@naver.com
 인쇄처/한손에이티디
 Tel.051-853-9783 Fax.051-853-9784



표지해설

이번 2월호에는 오륙도사우회 회장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신영순(8회)동문의 작품을 실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솟아오르는 아침해와 같이 우리 청조인들도 힘찬 발걸음으로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Cheongjo Vol.422

이천십이년 이월호

4 __ 총동창회 소식

6 __ 김형만 총동창회장 취임사

8 __ 모교소식

9 __ 동문기고

10 __ 자랑스러운 청조인/경찰청장 조현오(28회)

12 __ 젊은 청조인/46회 동기회장 최장원

14 __ 동문동정

15 __ 동기회 및 지부(지역, 직능) 소식

18 __ 부발위 모금현황

19 __ 사무국 통신

총동창회 분담금 납입계좌 안내

부산은행 030-01-055534-3

부산중·고 총동창회

부산고 발전기금 모금 계좌번호 안내

하나은행 880-910001-09104

(재)청조장학회(세제혜택 가능)

SC제일은행 459-20-214459

부산고등학교발전위원회(세제혜택 불가)

자점 이전 안내

현대자동차 양정지점이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넓은 장소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광우(32회)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45-11
 전화번호 : 051-861-3911 FAX : 051-853-4384



제119차 결산이사회 및 회장단회의 제30대 총동창회장에 김형만(21회) 야구부후원회장 선출



지난 1월 16일(월) 저녁 6시 초량동 소재 노블리아 뷔페에서는 임현택(20회)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9차 결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두(1회) 동문, 성낙교(8회) 동문, 김정득(9회) 동문 등 총동창회 고문들을 비롯하여 박재식(4회) 동기회장까지 참석하여 동창회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과시하였다.

개회 선언 및 참석 임원 소개에 이어 임현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준데 감사하며 임진년 새해에 모두들 뜻하신 바를 이루기 바란다며 덕담했다. 또한 이번 결산이사회에서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1년도 총동창회 행사에 대한 경과보고 후 이날의 상정안건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첫 째 안건인 ‘부발위’ 및 청조장학회 개선방안은 권경철(33회) 사무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다. 권 사무국장은 ‘부발위’에서 모금한 기금 중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9억원 가량의 원금잠식이 예상되며, 관할 관청인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금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주의를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부발위’의 활동에 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자고 하였다. 임현택 총동창회장은 원금잠식이라기보다는 원래 100억 원을 모금

하고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학교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학교에서 조기 지원을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모금 목표액 달성을 전에 기

금을 사용하게 되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제2호 안건인 ‘부발위’ 장학기금 모금 운동 건은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차기회장이 회장단 회의나 이사회 등 의결기구를 통하여 다시 논의하여 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제3호 부산중학교 지원문제는 현 부산중학교 김성호(24회, 부중출신) 교장이 지난 해 개최되었던 부고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임현택 총동창회장에게 제안한 것이다. 부산중학교 동창회가 별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부산중·고등학교 총동창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이를 시기에 오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이날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차기 총동창회장 선출 건이 논의되었다. 발언권을 얻은 최용혁(43회 동기회장) 동문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총동창회장을 선출해 나간다면 자신은 100살이 되어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 안건 역시 차기 회장이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임현택 총동창회장은 본안으로 돌아가 직전에 있었던 회장단회의에서 차기 회장후보로 김형만(21회) 야구부후원회장이 추천되었음을 고지하여, 찬반 표결을 한 결과 만장일치 박수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기타토의에서는 김균태(19회 동기회장) 동문이 지난해 실시되었던 제12회 부고의

날에 있었던 인사사고, 행사일 연기와 골프대회 회비 접수, 회보구독료 신설 등을 거론하며 행사사전 준비 부족과 회원들에 대한 과중한 금전적 부담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임현택 총동창회장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양해를 구했다. 2011년도 감사보고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에 예치되었던 동창회 발전기금의 손실부분에 관한 동문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장재규(38회) 사무차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한 부산2상호저축은행 2011년도 손실분 535,984원과 부산상호저축은행 2012년 손실 발생 예정분 15,182,063원을 설명하여 이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 외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어 감사 3명의 서명날인이 된 감사보고서가 박수로 통과되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고의 날 행사에 대한 비용이 2천 5백만 원 반영된 것이 특징이었다. 야구부후원회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특별한 변동이 없었으나 분담금의 적극적인 납부를 요청하였다. 2011년도 미수금 내역의 특징은 38회 동기회에서 지난 4년 간의 미수금을 포함하여 2,360만원을 원납하여 미수금을 제로로 만든 점을 발표하여 동문들의 호감을 샀다.

공지사항 전달에 이어 교가 제창, 김홍두(1회) 고문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제119차 결산이사회를 마쳤다.

한편 앞선 저녁 6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확대 회장단회의에서는 결산이사회에서 토의할 안건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김형만 야구부후원회장이 차기 총동창회장후보로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 대학생 회장단회의

지난 1월 5일(목) 저녁 7시 영동소재 삼오정에서는 20여 명의 대학생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제1차 청조 재부 대학생 회장단회의가 개최되었다.

권경철(33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은 총동창회의 미래 주역으로서 대학생 동문들이 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준데 감사하며, 올해는 결속을 강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에 대신했다. 이어진 안건 토의에서는 대학생 동문들의 현황파악을 위해 각 대학 별로 주소록을 작성하여 공유하기로 했으며, 총동창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체전을 재개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특히 김용관(26회, 부



발위 실무부위원장) 동문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생 동문회의 태동 경위와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준비한 총동창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 주소, 주소, 전화번호, 회보 소개, 지역동문회 소식 등 기본적인 사항의 설명에 이어 자기소개, 대표자 선정 등을 끝으로 대학생 회장단회의를 마쳤다.



김형만 총동창회장
취임사

‘감사하자, 굳세자, 힘쓰자’ 모교 교훈을 깊이 새기며 총동창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2012년 2월 16일 총동창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취임사 중에서 –



동문여러분!

21회 김형만 인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2년간 총동창회 야구후원회장으로서 임현택총회장님과 함께
수많은 동창회 내외행사에 참석하면서 총동창회장의 직책이 정신적으로
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깊이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임현택회장님께서는 총동창회장 2년만에 위장병이 생기고, 비
록 앞머리칼은 보기좋을 정도입니다만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정수리 부분
에 머리카락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고생한 우리 임회장님께 머리숱이 원상복구 되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이 모교야구부의 무운장구와 좋은 성적을 기원하는 ‘야
구부 고사’를 많은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지냈습니다.

재작년 화랑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하였고, 작년말 열린 부고·경고 빅매치 야구경기에서 9
회말 10:9로 역전승하여 야구명문 부산고의 명예를 드높인 김민호 야구감독과 야구부 관계자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너무 많아 박수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는 모교의 제65회 졸업식과 더불어 새내기 동창회원 333명의 입회식도 같이 있었습니다.
식후에 동창회에서 마련한 더파티센텀점 모교 교직원 회식에 박규찬 교장선생님은 80명의 교직원을 대동
하고 참석하였습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은 물론 기숙사 사감, 행정실 직원,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와 주방아주머
니들까지 모두 참석하여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직원 전체가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힘이 많은 부산의 공립고등학교중에서 제일좋은 진학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교의 중흥을 위하여 온 정성과 정열을 불태우시고 이제 부산고등학교를 떠나시는 박규찬 교장선생
님께 힘찬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동창회는 올해 신입회원들까지 합하여 31,125명의 동문이 있으며, 기별동기회가 48회까지 결성되어 있고(47회는 미결성) 전국 22개 지부의 지역동문회와 21개 직능 동문회가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고발전위원회가 명문 부산고 부활을 위해 동문 결집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은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제30대 회장단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저희 회장단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고 봉사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될것이며 이는 임현택 회장님께서 강조하신 화합과 소통 정신을 이어받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48회 이후 동문들의 동기회 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임기내에 적어도 58회까지는 동기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Join하고 Voluntary Service해 주십시오.

팔짱만 끼고 비켜서서 동창회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지켜 보시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여 주십시오.

비록 깜냥이 안되고 저명인사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총동창회장이 되어도 여러분의 도움만 있으면 우리 동창회는 물론 부산고교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명문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정든 모교를 떠나 서로 다른 가지에서 각자 살고 있지만 돌아갈 뿌리는 하나, 그 것은 곧 청조인인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굳세게 힘쓰자는 우리 모교의 교훈을 되새기며 앞으로 2년간 총동창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것을 다짐하면서 부산중고등학교총동창회 제30대 회장 취임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조인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교소식

2012년 부산고 교직원 해외연수 – 상해, 항주 여행



2012년 2월 1일, 여행을 막 시작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신나는 일 이지만,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진 것은 부산고등학교에서 함께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른 경험과 깨달음을 중국에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즐거운 추억거리도 가슴 속에 새긴 유익한 여행이었습니다. 해외교직원연수를 마련해주셨을 뿐 아니라 안내도 해주시기 위해 먼 곳에서 달려와 주신 부산고등학교발전위원회의 허삼수의원님, 심용섭선배님, 동현선배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3박 4일 중국여행의 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동창회 선배님을 비롯하여 25명이 상해와 항주를 3박4일 간 여행하는 동안 일 년 중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90일 정도 밖에 없다는 상해의 흐린 날씨가 우리의 여행을 반겨주 듯 3일간 아주 맑았습니다. 상해에 도착하니 지금껏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아직은 덜 발전한 나라라는 편견이 짹 사라졌습니다. 동명명주를 비롯한 휘황찬란한 빌딩들, 상해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계획전시관을 보면서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한 상해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현대화된 모습 뿐 아니라 도심의 한 편에는 오색의 아기자기한 중국의 전통예술품을 팔고 노천카페가 즐비한 타이캉루 예술거리, 다양한 얼굴과 전통 의상을 입은 중국 소수민족들이 골동품을 팔고 흥정하고, 서로 언쟁하는 모습도 만날 수 있었던 동타이루거리 등 상해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들을 거닐며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해의 모습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저녁식사 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중국 서비스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으로 전파되는 등 다른 나라와의 문화 교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중국 서비스가 왜 단연 세계 최고인지 그 위엄을 느낄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중국의 문화를 담고 있고 스토리가 전개되는 묘기는 신기함과 놀라움을 넘어 중국의 문화가 담겨있음을 느꼈습니다.

상해에서 세 시간을 달려 둘째 날의 여정은 항주에서 시작합니다. 항주는 역사문화도시로서 1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상해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서호십경이라는 10곳의 절경으로 유명한 서호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서호를 누비는 유람선 안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절경을 보며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던 때는 오래도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항주의 자랑거리인 송나라 천 년의 정(情)과 역사를 주제로 한 “송성가무쇼”는 300여 명의 공연단이 출연해 그 규모에서 놀랐을 뿐 아니라 송나라의 역사와 아름다운 전설을 춤과 노래로 재현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해 서비스와 송성 가무쇼를 보며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대표 공연이 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항주에서 두어 시간을 달려 양자강 남쪽 “물의 마을” 중의 하나인 서당에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옛 운하를 따라 나룻배를 타고 다니는 마을의 모습이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비슷했지만 베니스가 상업화된 관광지의 느낌이라면, 이 곳 서당은 사람냄새가 물씬 나는 중국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매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던 시간은 값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사들과 동창회 선배님들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부산고 선배님들의 무한한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교와 후배들을 늘 사랑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발위가 있고,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기에 부산고는 앞으로 더욱 찬란히 빛날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부산고 교사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문기고

존경하는 동창회장님과 선배님!

영화 "친구"를 감독한 과경택의 친구 38회 정석호라고 합니다.

1982년 제가 모교에 배정되었을때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축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제뒤에 부산고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음을. 친한 친구가 요즘은 모교에 입학하는 것은 천운이라 하던데 재작년 제아들이 모교에 배정되었을때 친구들과 선후배들은 제가 그동안 부고에 바친 열정의 댓가라고 했습니다.

82년 제가 입학하면서 야구부가 연습하는 것을 보고, 밤새도록 야구부에 넣어달



라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SNP라는 야구팀을 만들었고, 그팀이 올해 30년을 맞았습니다. 이팀을 주축으로 2002년 <청조리그>를 만들어,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청조리그는 올해 14팀이 참가하여, 어제까지 홈페이지 가입동문만 325명이며, 비가입 동문까지 합치면, 400여명에 달하는 명실상부 모교내 최대최고의 열성적인 모임이라 자부합니다.

선배님들께서 우려하시는 40대 이후 기수들의 동기회 결성문제도 <청조리그>에 후배들이 동기팀으로 참가하면서, 동기회가 결성되고, 동기회내에서도 주축멤버들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후배간을 이어주는 충실히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창회장님과 선배님!

그런데 이 400여 동문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매월 1주 오전과 2주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나마 1시간 40분. 타임제로 운영해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3, 4주는 사회인야구에게 대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동창회에서 모교와 야구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그럴것이라고 <청조리그> 동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청조리그> 회원들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후배들이 맘놓고 야구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찾아주십시오.

부발위가 결성되어 모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하여, 올해 입시에 좋은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야구부도 사랑하는 우리 동문이고 후배들입니다. 바라옵건데, 선배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김민호감독님과 야구부원, 그리고 그들만 바라보는 학부모들에게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주시고, 저희 400여 <청조리그> 동문들의 열망도 풀어주십시오. 그렇다고 <청조리그>에서 염치없이 공짜로 운동장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힘닿는 대로 야구부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선배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8회. 정석호 올림.

- 2002년. 청조리그 창단 -현 청조리그 회장. 홈페이지운영인
- 현. 청조구락부 부회장 -38회 20주년 총무, 동기회 홈페이지 운영인
- 현. 야구부운영위원 -부산대학교 동문써클 효경회 OB회장

〈청조리그. 지원사항〉

- 매년 신입생전원에게 모교가 새겨진 교통카드 지원(약 350매)
- 모교 장학금 지원, 야구부 동계훈련 및 야구부 행사(고사, 야구대제전, 신입생환영회) 지원
- 모교 행사 협찬 (등반대회, 부고의 날 등)

〈참가팀〉

- 30회, 34회, SNP, 38회, 40회, 41회, 42회, 43회, 44회, 45회, 46회, 52회, 동아대, 부산대



동문 인터뷰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처지의 동료와 같이 갈 수 있는 청조인이 됩시다.

경찰청장 조현오(28회)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 조현오(28회)동문을 김동진(24회)편집장이 만나 그의 철학과 인생관을 들어 보았다.

1. 경찰청장으로 취임하신지 1년 5개월이 되셨는데 그동안 느낀 소회는 어떠신지요?

지면을 통해 동문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취임한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과 함께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제가 경찰청장이 되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은 대한민국 경찰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헌신적인 경찰임에도,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4대 범죄의 발생 건수가 세계 주요 7개국과 비교해서 겨우 1/4, 특히 절도는 1/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거기에는 부정부패, 인권침해, 가혹행위, 불친절한 업무행태, 매관매직하고 청탁이 난무하는 인사, 이런 부분이 경찰조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경찰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을 하려고 했으며, 이제는 일정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동안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셨는데요, 특히 청장님께서는 개혁성과 중에 인사정의를 제일 먼저 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요?

취임하자마자 인사청탁자 공개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하여 외부개입 소지를 차단하였을 뿐 아니라, 청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원들조차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정의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아울러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성과에 근거한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전념하여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최근 보도에 과거보다 경찰 부정부패에 대한 보도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보면 청장님께서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진하셨고 그 성과는 어떤지요?

지난해 연초부터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지휘부가 대거 연루된 '함바비리'가 터지면서 경찰은 조직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경찰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각종 청탁 및 대상업소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의무위반행위는 158건으로, '10년의 223건에 비해 무려 29.1% 감소하였으며, 특히, 금품수수·공금횡령의 경우 단 7건 발생하는 데 그쳐 지난 5년 평균 대비 91.5%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국민들의 기억속에 청장님 하면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조현오식 성과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부산청장으로 근무할 때 처음 도입을 하였는데 당시 부산의 치안상황이 상당히 열악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성과주의이고 서로 관할이 애매한 곳에 서로 미루던 상황이 서로 먼저 출동하여 치안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어 가는 것을 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대표적 정량적 성과지표였던 지역경찰, 교통, 수사기능 등 국민 접점 기능의 지표를 국민중심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경영’으로 전환, 지역 치안책임자의 평가 자율권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등 국민 중심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서울청장으로 계실 때 양천서 고문사건으로 곤욕을 많이 치르셨지요. 그 후 경찰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화두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인권은 경찰활동에 있어 최상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고비마다 경찰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근원부터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우선 조직 내 최고 인권전문가를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배치하여 ‘방방곡곡 찾아가는 인권교육’, ‘전국 순회 인권토론회’를 광장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여죄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여죄수사에 대한 성과평가 점수를 대폭 하향조정하였으며, 대내외 차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정 함으로써 인권 친화적 경찰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인권위 권고건수는 45건으로 과거 5년 평균(68건)과 비교하여 약 33.8%가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인권위에 신고된 직원 1인당 인권관련 진정은 경찰이 검찰의 1/2 밖에 되지 않는 등 인권침해기관에서 인권실천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6. 지난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텐데, 앞으로 어떻게 수사권 조정문제를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개정된 형소법은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하였으나 이와 함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여 기존의 일방적·독점적인 수사구조를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입법의 취지와 달리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권을 더욱 공고화하는 등 ‘검찰권 견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소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권보호를 수사지휘의 명분으로 내세우나, 각종 지표를 볼 때 ‘인권’과 ‘청렴도’ 면에서 오히려 경찰이 검찰을 앞서고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직원 100명당 경찰 9.7건, 검찰 18.8건으로 검찰이 2배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 국민권익위 주관 규제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경찰 5위, 검찰 11위로 나타났습니다.

7.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현안문제가 되자 청장님께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요?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희망과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학교내의 구성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 한 이후에 개입하는 형사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 대응하는 행정법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전의경 가혹행위를 근절한 것처럼 학교폭력도 경찰의 노력으로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 정말 바쁘게 경찰조직과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동창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부산고는 60여년 성상을 거치면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지금도 많은 동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히 할 때 사회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였듯이, 개개 동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총동창회가 학연에 의한 이익집단이 되지 않도록 청조인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9. 총동창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최근 학교가 학생 수도 모자라고 침체되어가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우선 모교가 위치한 원도심이 인구감소와 슬럼화되어 가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 계신 동문들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발 위를 통해 모금활동도 하고 총동창회가 한번 해보자하는 분위기가 있어 무척 고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일류대에 몇 명을 더 보내자는 것으로 가기보다는 바쁜 시민으로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을 만들어 내는 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양극화의 폐해가 결국 그렇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불과 5% 남짓한 성적 우수 학생도 물론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교육을 하고, 나머지 다수의 95% 학생들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모교의 자긍심을 가지고 빛나는 보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와 모교의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 모교에 재학중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잘나도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 선배, 후배와 같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처지의 동료와 같이 잘 수 있는 청조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 청조인

사회복지법인 덕인복지재단 대표이사/ 동서대 겸임교수

46회 동기회장 최 장 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5.1%, 2026년에는 20.5%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노인들에게 만성적 질병이 독립적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상 생활 속에서 장애적 삶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의 한 형태인 노인성치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유교적 전통이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젊은 층에서의 이혼율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의 부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녀의 70% 이상이 노부모를 노인시설에 모시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모시는 일이 더 이상 한 가정 안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청조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전 명문 부산고등학교를 통과하고 부고인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통과하고 부러워한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아버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산고 13회로 우리 부자는 동문이며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도 청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고 출신이시라는 걸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부산고로 입학 배정을 받았을 때의 아버지의 흐뭇해하시는 미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준화 이후 지금은 옛 명성을 아직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100억원의 발전기금 모금 등 각계각층의 많은 청조인의 땀과 노력으로 저는 분명히 머지않아 부산고의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다.

대학 4학년 때 저의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다 저는 유학을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 석사 과정인 MBA 공부를 위해 전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해서 영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첫 수업 후 저의 자신감은 산산이 무너졌고 자신감은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경영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전문적 개념들을 설명하는 미국교수의 강의를 이해하고 소화해 낸다는 것은 저에겐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구나 경영학 석사 과정의 성적평가는 무조건 상대평가시스템이라 미국학생들과 경쟁하여 전 과목을 최소 B학점을 받지 못하면, 과락이라는 결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하고 처절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도교수님의 말씀이 저 머릿속에 생생이 남아 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해야 되며 네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 해 줄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유학 중 몇 번이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도록 어려운 여건과 시련 그리고 고난이 밀려왔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인내하고 또 극복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학업에 열중한 결과 꿈에 그리던 MBA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학시절 경영학에 대해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고난과 시련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게 되어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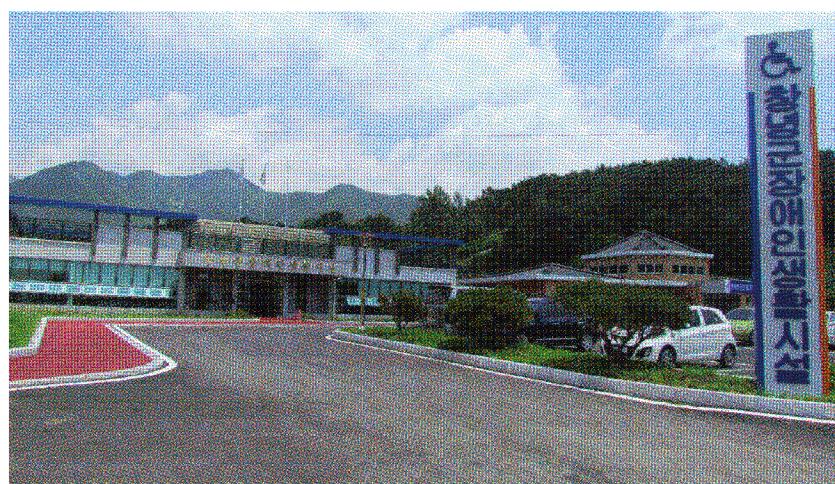
사회복지분야에 도전

MBA 공부를 마치고 귀국 후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로 복지국가로 가야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어있음에 차안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에 경영학을 접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경영부문의 학문적 연구와 노인복지시설의 효과적 운영과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의 나아갈 방향을 연구 제시하기로 결심하여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 개원하여 노인성 치매 및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원 50여명과 함께 저희 부모님 모시듯 사랑과 효도로써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 법인 설립 5년째 되는 해입니다. 5년 전 1개의 요양시설로 시작한 법인의 요양시설이 지금은 법인산하에 큰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2곳과 복지센터 1곳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독거노인들의 생활시설인 양로원을 신축하여 내년 6월경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복지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실버타운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년의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한 저희 복지 법인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위의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받은 많은 도움을 사회에 꼭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드리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busan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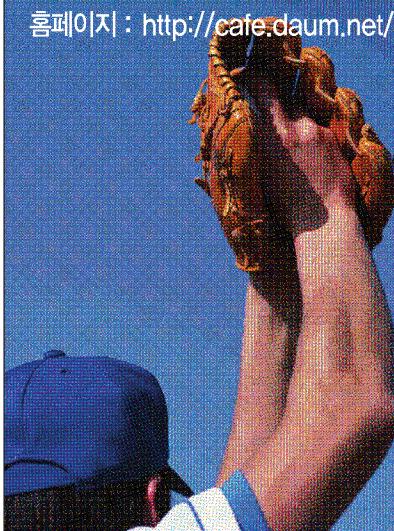
祝 창립 10주년

2012년도 청조리그 (Since 2002) 개막

(매월 1, 2주 부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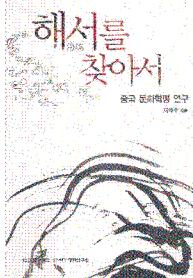
- 회장 : 정석호(38회)
- 부회장 : 정일경(38회)
- 총무 : 이제훈(43회) 017-587-0977
노태경(43회) 010-2572-8544
- 역대회장 : 추수근, 조창건(이상 30회),
김동완, 김동인, 김상보(이상 34회)
정석호, 정일경(이상 38회)

- 총회원수 : 326명
- 참가팀 (14팀)
- A조 : SNP(연합), 43회, 44회, 45회,
52회, 동아대(OB.YB), 부산대(OB.YB)
- B조 : 30회, 34회, 38회, 40회, 41회,
42회, 46회
-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문동정

이채주(6회) 동문「해서를 찾아서— 중국 문화혁명 연구」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인 이채주(6회)이 「해서를 찾아서— 중국 문화혁명 연구」를 출간했다. 1958년 삼면홍기 정책, 특히 인민공사에서 비롯된 중국 인민의 비극과 1966년에 시작되어 10년의 동란 끝에 1976년 모택동 사망, 강청 등 사인방의 체포로 막을 내린 문화 혁명, 등 소평이 주도한 1978년부터의 근대화 혁명 30년의 발자취를 정치 주역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중국 현대사 연구이다.

화정평화재단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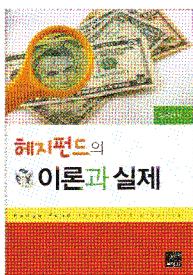
권경술(15회) 동문「대보부모은중경 총설」



불영사 주지 스님 권경술(15회)이 부처님 이 부모 자식간의 동체 대비의 지고한 사랑을 일깨우신 「대보부모은중경」을 해설한 「대보부모은중경 총설」을 출간했다. 혜가족이 보편화된 시대에 노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공경하는 자세 또한 성불에 이르는 길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효가 무엇인지, 효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우서적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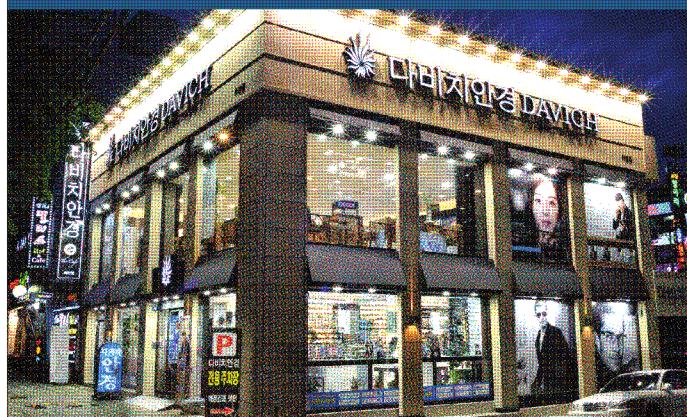
노희진(26회) 동문「헤지펀드의 이론과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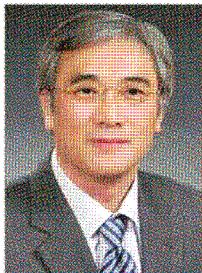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의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노희진(26회)이 헤지펀드에 관한 명확한 이해와 실무적 활용방안을 제시한 「헤지펀드의 이론과 실제」를 출간했다. 국내 자본시장에도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되어 금융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는 현 시점에서 이 책은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뿐 아니라 운용 전략과 리스크 관리 등을 총망라하는 헤지펀드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주)박영사 / 25,000원

동문가족 정찰제 특별할인



이명관(31회) 동문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 선임



이명관(31회) 동문이 지난 1월 19일 부산일보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16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1982년 편집국 수습기자로 부산일보사에 입사한 이 동문은 서울지사 정치부장, 경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뉴미디어 센터장, 수석논설위원 등을 역임하고 지난 해부터 기획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부산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1982.2)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수료(1985)

경력 :

-1982년 4월 부산일보 수습기자 입사

-2002년 ~ 2007년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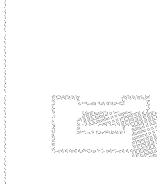
-2008년 ~ 2009년 뉴미디어센터장

-2010년 ~ 2011년 수석논설위원

-2011년 기획실장

-2012년 1월 현재 부산일보 대표이사 · 사장

강경호(31회) 동문 국제신문 부국장으로 승진



강경호(31회) 동문이 지난 1월 12일 국제신문 정기인사에서 광고국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88년 국제신문 복간 당시 입사한 강 동문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하고 기획사업실장, 출판부장 등을 거쳐 광고관리부장을 맡아왔다.

조영우(36회) 동문 신한은행 영도지점장 부임



조영우(36회) 동문이 지난 1월 신한은행 영도지점장으로 부임했다. 조영우 동문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한은행에 입사하여 주로 서울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부산으로 내려왔다. 조영우 동문은 특히 대출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비치 안경은 전국 정액 정찰제 체인입니다.

- 신뢰할수있는 가격과 제품
- 넓은 주차 공간(12대 주차가능)
- 고객을 위한 무료카페 운영
- 차별화된 양안시검안. 매니저

하단점

(주)다비치안경체인

부산시 시하구 하단동 528-1

T.051)205-4470 F.051)205-4478

www.davich.com

원장 김 덕 윤(32회)



다비치안경
Optical Chain Store

하단동 5거리
동아대학교 방향 농협 옆

동기회 및

2월

지부(지역, 직능) 소식

김성현 신임회장 건강주의 당부

8회 동기회



매년 1월 8일이 정기총회 날인데 일요일과 겹쳐 6일 새로 옮긴 회관에서 개소식을겸하여 행사를 거행하였다. 30여 명이 모였는데 회관이 좁아 실내가 꽉 찬 느낌이다. 박준구 회장의 1년 간 협조에 감사하다는 간단한 이임사에 이어 문경순 총무의 결산 및 예산 보고에 별다른 이론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다음으로는 어렵게 새로 선임된 김성현 회장의 취임 수락 겸 동기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다. 특히 건강에 대한 주의와 염려를 당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모임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총무는 문경순을 또 지명하였고 본인이 봉사하는 것을 즐거움이라 여기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총회를 마쳤다. 미리 준비한 제물을 차리고 주동관 회원이 지은 축문을 직접 낭독하여 제법 격을 맞춘 입주식을 거행하고 건물 뒤에 있는 참가자마 헛집에서 오찬을 즐겼다.

김배균 회장 연임 만장일치 의결

9회 동기회



9회 동기회(회장 김배균)는 1월 20일(금) 12:00 중앙동 중식당 홍문에서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김배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별 탈 없이 1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많은 만남을 갖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건강에 유의하여 동기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다. 이어 55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경과보고, 50명 이상이 회비를 납부한 내용이 곁들여진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 다음으로 김정득(총동창회 고문) 동문이 임시의장을 맡아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처리하였다. 김동문의 9회 동기회의 전통인 만장일치 추대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임회장 추천 제의에 참석자들은 김배균 동문을 이구동성으로 추천하였으며, 뜨거운 박수로 신임회장을 맞이하였다. 김배균 신임회장은 많은 참여를 부탁하는 짧은 인사로 취임사에 대신했다.

동기들과 더 많은 만남을

10회 동기회



10회 동기회(회장 이선교)는 지난 1월 30일(월) 오후 6시 해운대 우동 소재 외식 1번가에서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순국선열 및 먼저 간 동문들을 위한 묵념에 이어 이선교 동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임원단을 비롯한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여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경과보고에서는 14년 만에 부활한 부고의 날과 부고, 경고 부산야구 라이벌 빅매치 단체 관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하였고, 이은호 감사의 감사보고와 결산 및 야유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인 것이 특징인 2012년도 예산(안)은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되었다.

2012년도 임원으로 회장에 방세윤 동문, 감사에 차현규 동문과 이선교 동문이 선임되었다. 방세윤 신임회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으니 동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인사에 대신했다.

50주년 기념행사에 최대의 노력을

15회 동기회



15회 동기회(회장 김현)는 지난 1월 27일(금) 저녁 6시 연산동 로터리에 있는 해암뷔페에서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류근모 동기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현 동기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며 6월 3일, 4일 양일 간 개최되는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서울에서 내려와 모임에 참석한 서울 동기회장 권영효 동문, 부회장 김도형 동문, 총무 김무열 동문 등 재경동기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재경 동기회장인 권영효 동문은 축사에서 부발위 활동이 1년 연장되었으나 미처 참여하지 못한 동기들의 협조를 바라며, 문집 제작 상황 설명, 50주년 행사기념품 설명과 더불어 일심단결하여 많이 참여하여 행사를 빛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2년 집행부에는 회장에 김현 동문, 부회장에 김창근 동문, 감사에 김문세 동문, 총무에 류근모 동문이 선임되어 한 해 동안 동기회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성숙한 性生活을 위해

17회 동기회



17회 동기회(회장 박무정)는 지난 1월 17일(화) 저녁 7시 서면 소재 풍차농원 숯불갈비집에서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박무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석한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짚지만 친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뜻 깊었고, 도움을 준 많은 동기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안창수 동문은 동기간 화합하고 단합을 도모하고 동기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하겠다며 인사에 대신했다. 특히 '성숙한 性生活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하여 참석 동문들의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감사보고에서는 '이상없음' 이란 문자전송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17회의 면모를 보는 듯 했다. 임원 선출에서는 전상구, 안규원 동문이 감사로 선출되었고, 기타 토의와 신임회장의 축하 건배사와 교가 제창을 끝으로 정기총회를 마쳤다.

이성권 신임회장 취임

23회 동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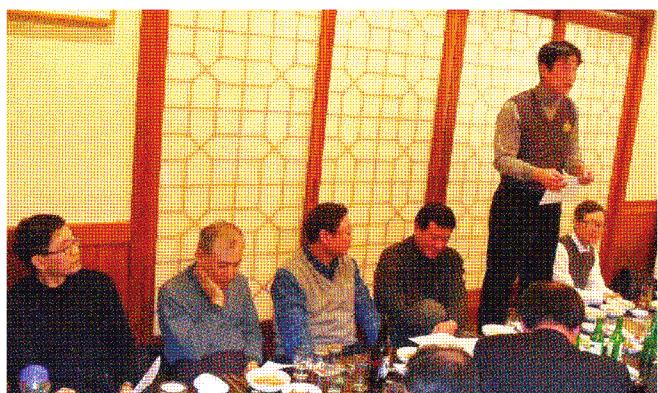


23회 동기회(회장 이덕재)는 지난 1월 20일(금) 연산동 코리아나 뷔페 진주점에서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덕재 동기회장은 인사말에서 명절이 임박한 관계로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총무를 비롯한 많은 동기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익숙해 질 만 한 그만두게 되었다며 회장직을 그만 두는 것을 못내 아쉬워(?) 했다.

지난 1년 간 모임에 많이 참석한 김동진, 하대봉, 신현보, 이청용, 조용운 동문 등이 공로회원으로 포상을 받았다. 2012년도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성근 동문은 전임회장과 총무에게 감사하며 회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1월 16일 개최된 총동창회 결산이사회 의의결 내용들을 설명하였으며 동기회에서 총동창회 임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고지하였다. 이외 수석부회장에는 백운흠 동문이 선임되었으며, 부회장과 감사는 유임되었으며 총무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27회 동기회



지난 1월 27(금) 오후 7시 서면 급행장에서는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7회 동기회(회장 조승범)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이병환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준영 신임회장은 물러나는 조승범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동기회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로 취임사에 대신했다. 또한 조승범 직전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도와준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화합하고 단결하는 동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신임 회장단에는 수석부회장 이종섭 동문, 감사 정성봉, 이우기 동문, 총무 이병환, 이재우 동문이 선임되었다. 본회부회장 및 야구부후원회 부회장은 자동적으로 조승범 직전회장이 맡게 되었다. 동기회 행사 일정 소개와 2011년 수지 결산 보고에 이어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기금 확충 건, 야구부후원회 부회장의 인선 및 분담금에 대한 토의 등으로 회의를 마치고 인근 호프집으로 향하였으며 2차는 조승범 동문이 찬조하였다.

와이파이 안되는 스마트 폰...

29회 동기회



29회 동기회(회장 조영재)는 지난 1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연산동 마리솔 뷔페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최낙순 동문의 사회로 유명을 달리한 동기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정기총회를 시작을 알렸다. 조영재 회장은 "먼저 동기회장직을 대과없이 마치게끔 해 준 동기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겁 없이 회장직을 맡아 일을 진행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동기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항상 하시고자 하는 일 즐겁게 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 하며 마지막 인사에 대신했으며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노고를 치하하였다. 최기열 동문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에 이어 신임회장으로 추인된 홍지원 동문은 동기회에 회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와이파이 안되는 스마트 폰이고 미사일 없는 이지스함이라며 동기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신임 수석부회장에는 김문겸 동문이 선임되었으며 조영재 전임회장과 최낙순 총무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동기의 소중함을 봄으로...

32회 동기회



지난 1월 27일(금) 저녁 6시 30분 연산동 연탄숯불 왕갈비에서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32회 동기회(회장 심특용) 2012년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김태수 총무의 개회선언에 이어 2011년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가 있었다. 심특용 회장은 동기가 소중함을 알 만한 연륜이 되었으니 모두들 친구를 위해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과 남은 임기동안 동기회 활성화와 소통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에 대신했다. 2012년도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건의 사항으로는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총무 판공비를 대폭 인상할 것이 있었는데 후자는 많은 인원이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공지사항으로는 2월 16일 개최되는 총동창회 정기총회 겸 신년인사회와 3월 8일 총무단 해외 연수 등에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끝으로 정기총회를 마치고 알콜과 함께 오랜만에 친구들과 정겨운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상우, 안성록 동문에게 감사장 수여 33회 동기회



33회 동기회(회장 이상우)는 지난 1월 10일(화) 19:00시 연산동 코리아나뷔페에서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상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부족한 자신을 위해 헌신해준 안성록 총무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항상 건강을 유지하여 오래도록 동기 간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에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권도영 동문은 그동안 고생해준 이상우 직전회장을 위해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로 노고를 치하하자고 하였다. 또한 용의 해에 승천하는 33회 동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도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신임 총무에는 채춘식 동문이 재무에는 박재용 동문이 선임되어 동기회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전임 이상우 동문과 안성록 동문에게는 동기회의 정성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날 모임은 신.구 임원들의 축하와 감사인사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나 33회 동기회가 갖는 끈끈함이 돋보인 자리였다.

30주년 행사의 분위기를 올해에도 34회 동기회



지난 1월 27일(금) 저녁 7시 연산동 경복궁에서는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34회 동기회(회장 이준우) 2012년 1월 동기회 및 예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준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1년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다져진 동기간 우정을 올해는 더욱 공고히 하자고 역설하며, 모든 행사에 많은 동기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운영예산안에 관한 토론에서는 총동창회 부회장 및 야구부후원회 부회장의 분담금을 동기회에서 지원하는 문제와 예비비에 관한 심도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기타안건으로는 고문이라는 명칭이 동기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 자문위원으로 변경하자는 안과 경조사에 총무가 참석하였을 때 경조사비를 동기회에서 지원하는 것 등이 논의 되었으며, 특히 졸업 20주년 적립금 미회수금에 관해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관심있게 토론에 참가하였으며, 현실적인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다.

2012년 영도동문회 신년회

영도동문회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 영도 동삼동에 위치한 어울림문화공원 2층 중국관 신세계에서는 영도지역 동문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신년회가 열렸다. 하복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지역과 동문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동문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임현택(20회) 총동창회장, 김형만(21회) 야구부후원회장 등 총동창회 임원들이 참석자리를 빛냈으며, 영도지역에서는 안건일(11회) 동문, 성한경(13회) 동문 및 영도 최고참 동문인 6회 차성준 동문, 새내기 대학생인 64회 유창경, 이상준 동문까지 함께 자리해 청조인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다시 한 번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해수부 차관 출신으로 오는 4월 총선에서 영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 출사표를 던진 26회 이재균 동문은 “갈수록 낙후돼 가는 고향인 영도와 부산발전을 위해 큰 뜻을 펼칠 것”이라며 “동문 여러분의 크나큰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오는 4월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고발전기금 모금현황 (입금 순으로 게재)

하나은행 납입기간 : 2012. 01. 01~2012. 01. 31

No	거래일시	회	성 명	납입 금액
1	2012-01-02	27	류동목	138,000
2	2012-01-02	24	정필현	30,000
3	2012-01-02	9	김종식	100,000
4	2012-01-02	16	이종락	100,000
5	2012-01-02	19	방성호	100,000
6	2012-01-02	39	하춘근	500,000
7	2012-01-02	37	우승진	1,000,000
8	2012-01-02	15	공길무	3,000,000
9	2012-01-02	15	허대조	500,000
10	2012-01-02	15	김영호	10,000,000
11	2012-01-03	18	한명수	5,000,000
12	2012-01-03	6	윤수원	1,000,000
13	2012-01-03	30	이병권	100,000
14	2012-01-03	11	이상준	300,000
15	2012-01-03	7	김종철	200,000
16	2012-01-04	17	이자훈	100,000
17	2012-01-04	34	전형식	500,000
18	2012-01-05	7	손영민	500,000
19	2012-01-05	17	김대훈	1,000,000
20	2012-01-05	21	민병철	1,000,000
21	2012-01-07	27	양철수	1,000,000
22	2012-01-09	34	맹인영	30,000
23	2012-01-09	17	김병국	100,000
24	2012-01-09	32	염희재	320,000
25	2012-01-09	15	이영일	2,500,000
26	2012-01-10	23	김정일	1,000,000
27	2012-01-11	15	진영수	100,000
28	2012-01-12	20	이강진	200,000
29	2012-01-12	32	정영길	10,000,000
30	2012-01-13	39	박현덕	50,000
31	2012-01-13	17	반성부	500,000

No	거래일시	회	성 명	납입 금액
32	2012-01-16	27	최판원	3,000,000
33	2012-01-16	23	장동오	100,000
34	2012-01-16	26	유종근	100,000
35	2012-01-16	28	이강수	100,000
36	2012-01-19	20	강문기	1,000,000
37	2012-01-19	15	고성진	1,000,000
38	2012-01-25	27	허윤	50,000
39	2012-01-25	29	최창수	30,000
40	2012-01-25	28	권태한	100,000
41	2012-01-25	41	문진오	50,000
42	2012-01-26	20	이기우	2,000,000
43	2012-01-26	23	심용섭	3,000,000
44	2012-01-27	6	차성준	5,000,000
45	2012-01-30	28	배원식	200,000
46	2012-01-30	28	송종우	100,000
47	2012-01-30	24	정필현	200,000
48	2012-01-31	27	류동목	138,000
49	2012-01-31	23	표삼수	1,000,000
50	2012-01-31	13	이창호	200,000
51	2012-01-31	7	이재영	1,000,000
52	2012-01-31	41	조승현	500,000
합 계				59,836,000

하나은행 납입기간 : 2012.01.01 ~ 2012.01.31

No	거래일시	회	성 명	납입 금액
1	2012.01.05	33	최문환	15,000
2	2012.01.09	30	안희동	100,000
3	2012.01.17	20	김기동	1,000,000
4	2012.01.17	20	김영태	200,000
5	2012.01.21	19	홍종구	1,000,000
합 계				2,315,000